



2006년도 제2차 이사회

강화된 식품관련법 대응책 마련

지난 3월 24일 중앙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06년도 제2차 이사회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안) 등 식품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업계 현실을 감안한 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글 김미선 기자 · 사진 주현진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는 지난 3월 24일 중앙회관 세미나실에서 2006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조병천 수석 부회장, 박찬희·유현식·주재근 부회장 등 회장단과 이사들이 참석해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등 새로 바뀌는 식품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가졌다.

한편 긴급 소집된 이날 이사회에는 파리바게뜨, 크라운베이커리,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3사 관계자와 (사)대한제과협회 기술지도위원들이 참석해 제과업계 전체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하나 된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됐다.

김영모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식품 관련 환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식품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업계의 현실을 바로 알리는 등 대정부 건의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이사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한다”는 긴급 이사회 소집의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표기에 대한 이번 개정(안)이 수입 농산물이 급증하는 탓에 국내 농업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식품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발의된 것인 만큼 제과업계만 제외될 수는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품의 ‘네임택’을 활용해 가능한 표기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정부 건의를 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았다.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과점 케이크류 진열·보관 판매’의 경우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투명덮개 사용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다. 이사진들은 “투명덮개의 경우 케이크의 위생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요소”라면서 “투명덮개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2차 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덮개를 씌우면 케이크 원래의 모양이나 색깔을

해쳐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편한 가중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권고가 제과점 쇼케이스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제과점이 쇼케이스 청소와 온도관리에 더욱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쇼케이스 제작업체와의 연계를 이뤄가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 식품 첨가물과 트랜스 지방 등 식품업계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펼쳐져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엄격해지는 식품 관련 법규나 제도는 이제 피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식품 안전에 적합한 재료를 공동으로 수급하는 등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하기로 결의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는 자영 제과점의 SK텔레콤과의 멤버십 제휴 등의 중앙회 업무 진행 사항을 보고받았으며, 지회·지부 조직 개편에 관한 의견을 조율할 조직특별위원회의 결성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